

트럼프 화합 강조...공화 '환호' 민주 '싸늘'

80분 국정연설 치적 자랑

국경장벽 필요성 거듭 주장

후기낙태 금지법안 통과 요청

북한 발언 지탄해와 대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하원 의사당에서 한 상·하원 합동의 회 형식의 국정 연설에서 '위대한 어드벤처'의 새로운 장에 대담하고 용감하게 진입해야 한다면서 조당적 화합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연방정부의 섀다운(부분적 업무정지) 사태를 불러왔던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거듭 촉구하며 민주당을 사실상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80분에 걸쳐 진행된 이날 국정 연설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과 낮은 실업률 등을 거론, "우리의 경제는 전 세계의 부러움이 되고 있다"면서 자신의 치적을 한껏 자랑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연단에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내가 제시하는 어젠다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어젠다가 아닌 미국민의 어젠다"라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더 안전하게, 우리의 가족을 더 강하게, 우리의 문화를 더 풍요롭게, 우리 믿음을 더 깊게, 우리의 중산층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번성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수와 저항과 보복의 정치를 거부해야 하고, 협력과 타협과 공동선의 무한한 가능성을 포용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함께 수십 년의 정치적 교착을 깨고, 과거의 분열을 극복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연합을 결성하고, 새로운 해법을 만들고, 미국의 미래에 대한 특별한 약속의 문을 열 수 있다. 그 결정은 우리의 것"이라며 단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은 긴급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불법 이민 문제를 제기하고 "나는 그것을 건설할 것"이라면서 미-멕시코 간 국경장벽 건설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쪽 국경을 보호할 법안을 통과시킬 시한이 10일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는 25일까지 민주당이 장벽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다시 섰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전국민 건강보험제도·ACA)와 관련, 건강보험

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할 것을 치적으로 거론했다. 이는 민주당이 격렬히 반대했던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후기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낙태 문제를 거론했다.

이날 의원들은 차별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연설 포인트에서 기립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사안별로 대응을 달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 등을 일으켜 세워 치하할 때는 기립박수를 같이 치며 호응했지만, 이민 문제나 미-멕시코 국경장벽 문제, 오바마케어 등 대립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리에 앉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상당수가 민주당 의원들로 보이는 여성의원들은 흰색 의상을 입고 참석,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주요 대목에서 냉담한 반응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연단 뒤 의장석에 앉은 펠로시 하원의장도 흰색 옷을 입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선별적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화합을 강조했다

만 정작 이날 국정 연설은 미 정치의 분열상을 극명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백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항의' 표시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원들은 2017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양원 합동연설 당시에도 여성 차별과 폄하 발언 논란을 빚은 트럼프 대통령에 항의하는 의미로 흰옷을 입고 등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 연설에서 북한의 핵 추구에 대해 '최고의 압박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히며 북한 인권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이날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면서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의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을 전격 발표해 확연한 대조를 보였다.

미 AP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당적 협력 호소는 그 자신이 일조해온 의회에서 중우분위기와 충돌했다"면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백의의 바다'(sea of white)를 이루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파 생생하게 표출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적인 국정연설에서 민주당에 양보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주장하는 국경장벽 이슈 등과 관련해 민주당에 아무것도 내주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연합뉴스

"日 반성·사죄 토대 역사문제 풀어야"

일지식인 226명 촉구 성명

일본 지식인 226명이 일제의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내용을 담은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 등을 근거로 남북한과 관련된 모든 역사적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등 6명은 6일 오후 도쿄 지요다구(區)에 있는 중의원 제2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일본 시민 지식인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와다 교수를 포함해 저명한 일본인 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20명과 와세다대학교 이종원 교수 등 모두 21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이날 회견장에는 6명이 직접 참석했다. 성명에 동의해 서명한 지식인은 역사가 103명, 학자·연구자 58명, 작가·변호사·언론인·출판인·예술가·영화감독 19명, 사회활동가

41명, 종교인 5명 등 총 226명이다.

2010년 한일합방 100주년 때도 양국 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성명을 냈던 이들 지식인은 현재의 비정상적인 대립과 긴장 관계를 우려해 긴급히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무라야마 담화와 '간 총리 담화'를 바탕으로 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야말로 한일, 북일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 일본의 3당 연합내각을 이끌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총리가 각의 결정을 통해 태평양전쟁 패전 50주년 총리 담화를 발표해 처음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한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아시아 제국(諸國)의 사람들"에게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중국도 춘제 역귀성 확산... 열차승객 늘어

중국에서 최대의 명절인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에 역귀성 현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6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일하는 젊은 층이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 자신의 집으로 부모를 초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후남성 상판 출신으로 광저우에서 일하는 한 남성은 이번 춘제에 부모를 광저우로 모셨다. 덕분에 기차표를 예매하려고 새벽에 알람시계를 맞추거나 불비가 없어졌다. 중국철로총공사는 수요가 높은 노선의 역방향으로 여행하는 승객이 지난 4년간 연평균 9% 증가했다고 최

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동의 비용도 적고 번거로움도 덜한 것이 역귀성의 주된 이유다.

온라인 여행사들에 따르면 춘제 일주일 전에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 같은 1선도시로 향하는 항공권 가격은 10~50% 할인됐다.

베이징정보는 1선도시로 가는 항공권 예약이 1년 전보다 40% 늘었다고 보도했다. 중국철로총공사는 춘제 기간에 전통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은 노선에 대해 최대 35%의 할인 혜택을 준다.

하지만 춘제 기간에 부모를 자신의 집으로 모신다는 생각을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니다. /연합뉴스

중지도부 미리 폭로 귀원구이 이번엔 기밀문서 공개

중국 공산당이 지난 2016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집권을 계기로 '독립론' 목소리가 커질 것을 우려해 대만 정세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왔음을 보여주는 기밀 문서가 공개됐다고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올해 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92 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지하란 합의)을 바탕으로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대만의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6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미국으로 도피해 중국 지도부 비리를 폭로해온 중국 부동산 재벌 귀원

구이는 지난 4일 총 5시간에 걸친 인터넷 생방송에서 '중공중앙판공청 반분열 활동 감찰공작 영도소조 성립에 관한 결정'이라는 기밀문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의 작성 날짜는 2016년 1월 19일로, 2016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독립 성향인 민진당의 차이잉원이 당선된 후 대만 정세를 감시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문건에는 2017년 5월 19일까지 대만을 계속 감시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이에 대해 귀 씨는 중국 당국은 차이잉원이 당선돼 '92 공식'을 부정하지 않을 까 우려한 끝에 감시통제팀을 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흑인 패 죽이고 싶었다" 리암 니슨 인종차별 논란

'테이큰' 이후 일련의 액션 영화로 한국 팬들에게도 친숙한 영화배우 리암 니슨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영화계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뉴욕에서 열린 예정이던 신작 영화 홍보 행사도 전격 취소됐다.

5일(현지시간) 영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리암 니슨은 새 영화 '콜드 체이스'(Cold Pursuit) 홍보를 위해 일간 인디펜던트와 인터뷰를 했다.

'콜드 체이스'는 '리암 니슨' 액션 영화로 기대를 모으는 작품이다.

리암 니슨은 영화 속 주인공의 복수 동기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애기를 하나 해 주겠다. 이걸 진짜 이야기다"며 말을 꺼냈다.

그는 오래전 자신과 가까운 지인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으며, 가해자가 흑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1주일 정도를 펍 같은 데서 나온 '흑인'(black bastard)이나에게 덤벼들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를(공보용으로 때려) 죽일 수 있도록 말았다"라고 밝혔다. 리암 니슨은 물론 당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 아라비아 반도 첫 미사 프란치스코 교황이 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자예드 스포츠스타디움에서 신자 17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입장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은 이슬람 발상지인 아라비아반도에서 처음으로 미사를 집전함으로써 이(興)종교 간 화해와 전 인류의 박애를 강조했다. /연합뉴스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골든타워 (중동 락희호텔, 홈플러스 근처)
 - 대지지분 78평, 건물210평(실147평)
 - 2012년 준공, 주차편리
 - 6층중 4층 전체,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레스토랑 등)
 - 주위에 업무용/상업용/근린생활시설등 혼재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준주거지역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음
 - 감정/시세-11억
 - 급매 - 8억

문의. 010-3605-5000